


제2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토 론 2

해외 협동조합 사례의 시사점

오 은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해외 협동조합 사례의 시사점

오은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최근 3-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가 재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정책적으로도 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전략이 강조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오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사회적경제를 운영해가는 주요 주체인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공포(2012. 1. 26)되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협동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특성화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세미나에서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고민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몬드라곤은 2010년 기준으로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 등 260여개의 회사를 포괄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이다. 이 사실을 얼핏 보면, “몬드라곤이 현 시점에 유용한 사례인 것일까?”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왜냐하면 올해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지금까지 협동조합으로 인정받기에는 너무 소규모인 공동체조직들에 법인화를 쉽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 것이어서, 몬드라곤처럼 대규모 협동조합사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러나 몬드라곤은 1956년 소규모 협동조합(울고, 기술자 5명, 노동자 10명)으로 시작하여 지난 수십년동안의 노력으로 지금의 대규모 협동조합연합체로 발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몬드라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발제자의 기존 협동조합의 역사, 몬드라곤 사례에 대한 고찰은 이제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양극화의 대안으로서의 생산자협동조합의 유용성, 조합원 배당을 통한 경제적 유인으로 조합원 충성도 강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조합원 신뢰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와 아울러 협동조합의 조직특성상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실효성이 적으므로 협동조합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간접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제자의 해외사례는 정책 출발에 다음의 단초를 제공한다.

첫째, 협동조합은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시작하며,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에는 지역리더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몬드라곤시는 스페인 내전 후, 정치적 소외지역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쇠퇴지역이었다. 몬드라곤의 여건은 바스크주의 다른 지역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호세 마리아 신부라는 지역 리더가 등장하면서 15년 정도의 주민운동이 진행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리더의 존재가 공동체조직의 발전, 그리고 협동조합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역리더(또는 잠재적 협동조합 창시자, 운영자)교육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 결성의 기초로 기존에 있던 공동체 조직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몬드라곤 사례에서 신부는 기존 성당조직을 다양하게 확대, 활성화시켰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하므로 기존의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형성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규모 확대(이를 통한 상생발전)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는 것보다, 일차적으로는 이미 지역 내 존재해 있는 공동체조직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게 지원하여, 공동체 조직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생적인 공동체 조직에 대한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작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원리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에 제시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및 홍보,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한 교육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추상적인 원칙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공사례 원칙들이 전파되면 도움이 되리라 본다. 예를 들어, 로치데일의 “이용고 배당의 원칙”을 채용함으로써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충성도를 증진시킨 사례, 몬드라곤의 비조합원에 대한 “설득 및 포섭”을 통한 조합원 증대, 충성도 증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 사례 등이 바로 그것이다.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 요건들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배당이 가능하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40%의 공익사업(지역사회재생, 주민 권익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등)을 수행해야 하고 배당이 금지되어 있다. 일반 협동조합은 등록시스템인데 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재부 인가시스템이며 또한 출자자의 배당이 금지되어 있어 제약이 많은 편이다(단,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은 허용)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현행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러 제약을 가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